

국내기업의 우즈베키스탄 진출방안

2019. 4



< 우즈벡 경제 변화와 기업 진출 방안 >

목표	신북방경제권 진출로 시장 다변화와 신성장 공간 마련		
우즈벡 주요 경제 성장 전략	개혁·개방	산업육성	인프라 확충
	-공식 환율과 시장환율 단일화 -대외 과실송금 제한 폐지 -경제자유특구 확대 운영(19개) -관광 무비자 입국 허용 -해외 수입 의료기기 및 주요 의약품 관세 면제	-자동차 산업 5개년 발전계획 -섬유방직 산업발전 구상 수립 -관광산업 5개년 발전계획 -보건복지 발전전략 -디지털 경제발전 방안 마련	-도로교통 인프라 발전사업 -상하수도 현대화 사업 -에너지 분야 발전 계획 -재생에너지 발전 및 에너지 효율 개선 프로그램 -수력발전방안 프로그램
우리 진출 방안	외투기업 혜택 이용	산업 高부가가치화 지원 활용	대규모 사업개발 선점
	- 주요 제도 개선 활용 - 경제특구 등 혜택 활용 - 보건의료 등 혜택 활용	- 섬유, 농업 등 정부정책 활용 - 우리 정부 협력 활용 * 섬유테크노파크, 농기계R&D	- 국제지원 등 개발 붐 활용 - 개발과 인프라 연결정책 이용 - 우리 개발 경험 유리
요망 분야	① 농업 : 우즈벡 GDP의 30%, 농업분야 한국의 對 우즈벡 수출 1위 품목 '비닐하우스' ② 자동차 : 한국의 對우즈벡 수출액 중 40%는 '자동차 부품' ... 韓 브랜드 '친숙' ③ 에너지 : 우즈벡, 전력·재생에너지 확대, 한-우즈벡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 경험 ④ 의료 : 韓 고위공무원 출신 차관임명, 수입 의료기기와 의약품 관세 면제 혜택		

1. 우즈베키스탄의 경제 현황과 정책 변화

1) 경제 현황

□ 주요 경제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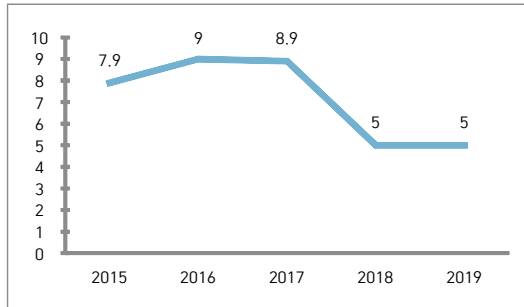
○ 우즈베키스탄 국가 개요

- 우즈베크 면적은 약 44만km²로 한반도의 2배
- 우즈베크 인구는 약 3,240만명('18년 기준)으로 중앙아시아 1위
- 주 종교는 이슬람교(88%), 러시아 정교(9%), 대다수의 민족은 우즈베크계(81%), 러시아인(5.5%)으로 구성
- * 고려인은 약 18만명 (중앙아시아 전체에서는 약 35만명)

○ 주요 경제 지표

- GDP는 510억 달러 수준으로, 2000년대 중반이후 연평균 7%이상 성장했으나 최근에는 5%대로 하락

< 우즈베크 성장률 추이(%)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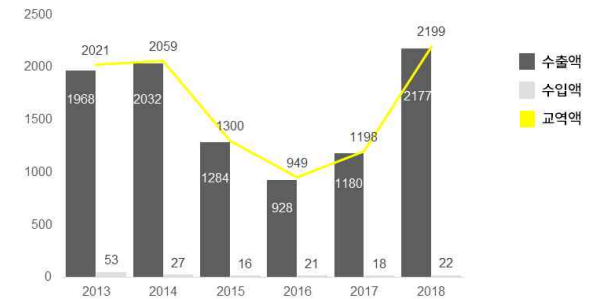
* 자료 : IMF WEO ('19.4)

- 산업별 GDP 비중 : 농업이 32.4%로 1위, 주요 제조업 분야로는 기계제조업(24%), 섬유산업(16%) 등
- 주요 자원은 우라늄, 원동기, 면사, 펄프 등

○ 한-우즈베크 교역 정보

- 한국의 對우즈베크 수출액은 21억 9,900만 달러, 수입액은 2,200만 달러로, 수출은 증가하는 반면 수입은 답보상태

< 한-우즈베크 교역 (백만 달러) >



* 자료 : K-stat

○ 한-우즈베크 투자

- 한국의 對우즈베크 직접투자는 신고기준 65건, 9,500만달러이며, 전년 대비 중소기업 투자 건수가 급증
- 주요 투자분야는 제조업(2,200만불)과 도·소매업(1,500만불)

< 한-우즈베크 투자(건, 백만 달러) >

[한국 → 우즈베크 직접투자 통계]



[우즈베크 → 한국 직접투자 통계]



* 자료 : 수출입은행, 산업부

2) 우즈베키스탄의 경제 정책

□ 경제 정책 변화

-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취임이후 2017-2021 국가발전 전략을 위한 계획 수립
 - 경제자유화, 행정부 현대화, 사법제도 개선, 사회부문 개혁과 국민 권익 보호, 외국인 투자 유치 및 보호, 외환시장 자유화, 중앙아 역내 협력 강화 등을 중요한 목표로 설정
-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통해 정치 안정과 경제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개혁 추진
 - 이러한 변화는 유라시아 경제권을 둘러싼 지정학적 변환, 러시아의 대유라시아, 중국의 일대일로, 서구의 신실크로드 등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고,
 - 중앙아시아 역내에서 새로운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노력

< 주요 경제성장 전략 >

개혁·개방 전략	산업육성 전략	인프라 확충 전략
-공식 환율과 시장환율 단일화 -대외 과실송금 제한 폐지 -세율 통합 및 세무보고 간소화 등 -경제자유특구 확대 운영(19개) -관광 무비자 입국 허용 -해외 수입 의료기기 및 주요 의약품 관세 면제	-자동차 산업 5개년 발전계획(~'21) -섬유방직 산업 발전구상 수립 예정 -관광산업 5개년 발전계획('17~'21) -보건복지 발전전략('17~'21) -디지털 경제발전 방안 마련	-도로교통 인프라 발전 사업 ('17~'18) -2017~21년 상하수도 현대화 사업 -2017~21년 에너지 분야 발전 계획 -2017~21년 재생에너지 발전 및 에너지 효율 개선 프로그램 -2017~21년 수력발전방안 프로그램

2. 국내기업의 우즈베키스탄 진출 방안

< 우즈벡 시장여건 및 정책에 따른 진출 방안 >

구 분	분 야	시장여건 및 주요 정책 내용
대규모 사업개발 선점	국제 지원	• 상하수도, 교통 인프라, 전력보급 등 지원 계획 - ADB 10억불(~'23), IDB 13억불(~'21) 지원 • 우즈벡, 10억불 유로본드 최초 발행 성공 • EU, 우즈벡 WTO 가입에 5백만 유로 지원 승인
	에너지 [유망]	• 가스개발 304억불, 78개 프로젝트 추진('17~'21) • 전력발전량 확대 14천MW('18) → 20천MW('21) • 재생에너지 확대 13.3%('18) → 19.7%('25) • 러시아와 원전 건설 추진중
	관광	• 우즈벡 관광발전 계획('19~'25) - 호텔 1,508개 건설, 호텔 건설비용 지원 등 • 64개국 관광목적 무사증 시행(30~60일)
산업 고부가가치화 지원 활용	섬유	• 원면 생산량 많으나, 디자인, 봉제 등 기술력 下 • 한-우즈벡 섬유테크노파크 개소 예정 • 시설현대화를 위한 건물/설비 구입비 50% 지원
	농업 [유망]	• 목화 수요 감소로 채소, 과일 재배로 다변화중 • 온실 재배 장려 등 시설농업 확대 - 온실설비 수입 12배 증가('15~'18년) • 한-우즈벡 농기계 R&D센터 개소 예정
	IT	• 전자상거래 시장 연평균 25% 성장('12~'17) • 한-우즈벡 공동 행정 현대화를 위한 전자정부 프로그램 계획, 전자상거래 가속화 조치 등
	자동차 [유망]	• 자동차산업 발전 계획('17~'21) 약 8억불 조성 • 자동차 국산화 목표로 부품의 자국 생산 노력 • 현대차 중앙아시아 최초 생산공장 착공('18)
외투기업 혜택 이용	제도 개선	• 외국인 환전 및 대외송금 제한 폐지 • 정부조달 외국인기업 참여 허용 검토
	경제 특구	• 산업, 의약품 등 총 19개의 경제자유특구 지정 - 법인세, 재산세, 토지세 등 감면(3~10년간)
	보건 의료 [유망]	• 보건복지 발전 예산 약 4천6백만불('17~'21) • 해외 수입 의료기기, 중요 의약품 세금 면제 • 의료관련 해외 의사, 기술자 임금 세금 면제 * 전 보건복지부 실장, 우즈벡 차관 임명

1) 대규모 사업개발 선점

□ 국제 지원 분야

- 국제금융기구에서 우즈벡의 상하수도, 교통 인프라, 전력보급 등 지원 계획중
 - 아시아개발은행(ADB)은 향후 10억불을 조성하여 상하수도, 교통 인프라, 전력보급, 청년일자리 마련, 보건 현대화 등을 지원할 계획
 - * '95년도 우즈벡 가입 후 현재까지 70억불 규모로 67개 차관 지원
 - 이슬람개발은행(IDB)은 우즈벡과 '2018~2021년 파트너십 전략'을 수립하고 13억불 차관 지원 계획
 - * IDB는 보건, 교육, 전력, 상수도, 도로 인프라 등 20개 사업 지원중
- 우즈벡 WTO 가입을 위해 EU와 우리나라에서 지원중
 - EU는 우즈벡 WTO 가입을 위해 500만 유로 기술지원을 제공할 예정
 - * 우즈벡은 '94년 최초 WTO 가입 신청 후 가입활동이 중단되었으나 '17.10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방한시 WTO 가입 재개를 표명하고, '18. 3월 WTO에 가입의사 재표명
 - 한국 정부도 우즈벡의 WTO 가입을 위해 행정·재정 지원 예정
 - * '18. 3. 12 타슈켄트에서 '우즈베키스탄 세계무역기구(WTO) 가입지원 세미나'를 산업부,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공동 개최

□ 에너지 분야

- 우즈벡은 세계 10위권의 천연가스 생산국으로 우라늄, 금 등 천연자원이 풍부
 - 우즈베키스탄은 총 에너지 공급량 중 천연가스가 88%를 차지하고 있으며, 천연가스의 의존도가 높아 이를 낮추고, 에너지원 다변화를 추진 중

< 천연가스 생산량 순위(BCM) >

순위 (17년기준)	국 가	2014	2015	2016	2017
1	미 국	733	767	759	767
2	러시아	647	638	644	694
3	이 란	175	184	190	209
4	캐나다	164	165	177	184
5	중 국	130	135	136	147
12	우즈베키스탄	62	62	63	64
13	아랍에미리트	54	60	61	61

* 자료 : World natural gas production statistics "Enerdata"

* BCM : billion cubic meter

- 에너지 발전을 위해 2017~2021년 304억불 규모의 78개 프로젝트를 추진중
 - 생산량은 향후 5년내 천연가스 53.5BCM(billion cubic meter), 원유 190만톤 등으로 확대될 전망
 - 신규 가스전 개발 및 가스화학공장 건설 사업 진행 예정
- 전력 발전량을 확대하고, 재생에너지 분야도 확대할 예정
 - 전력 발전량을 현재 1.4만 MW에서 2012년 2만 MW로 확대할 예정
 - '2017~2021년 경제사회 부문 재생에너지 발전 및 에너지효율 개선 프로그램' 채택
 - 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2025년말까지 530억불 규모의 810여개 프로젝트 진행 예정
 - *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현 13.3%('18년)에서 19.7%('21년)로 확대 계획
- '2019~2029년 핵에너지개발 구상 및 관련이행 로드맵' 채택
 - 우즈벡은 러시아와의 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계기로 '18년 9월 우즈벡 최초로 원전 건설을 위한 협정을 체결
 - * 러시아와 1.2GW급 원전 2기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28년 완공 예정

- 2018년 에너지·자원 관련 투자는 약 34억불로 전체 외국인투자 (FDI+차관) 중 에너지·자원 분야가 53.8%를 차지
- 우리 기업 성공 사례
 - 수르길 가스화학 플랜트 프로젝트, 탈리마잔 복합 화력발전소 건설, 타히아타쉬 복합화력발전소 건설(진행중) 등

□ 관광 분야

-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'우즈베키스탄 관광발전 구상 2019~2025' 대통령령 발표
 - 법령정비, 국가관광브랜드 육성, 관광산업 비중 확대 등을 목표
 - * GDP 대비 관광산업 비중을 5%로 확대 (2017년, 관광산업 비중 2.3%)
 - 숙박시설 신축·개보수 비용 지원, 교통망 정비 등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도 아울러 추진
 - * 2021년 말까지 우즈베크 내 1,508개 호텔 건설 목표
 - * 국가예산 지원 내용 : 호텔 등급에 따라 객실 당 약 4.8~7.8천불
-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증제도 개선
 - 관광목적 30일 무사증제도를 64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
 - * '18. 2월(한국 등 19개국), '19년 2월 (호주 등 45개국) 대상 확대

2) 산업 고부가가치화 전략 활용

□ 섬유 분야

- 현재 우즈베크는 부가가치가 낮은 원면과 원사 생산량이 높고, 디자인, 봉제 등의 기술이 부족한 편으로 외국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및 산업 밸류체인 형성 도모

- 제품경쟁력 제고를 통한 생산·수출 확대를 위해 '2019~2025년 섬유방직산업 발전구상' 수립 예정
 - 올해 '섬유방직산업 수출 개선 추가방안'(2.12)을 발표하여 완제품 생산과 생산 현대화 건물·설비 구입 지원
 - * 2019.4.1.부터 내각 산하 기업발전지원기금을 활용하여 기업의 은행 대출이자를 △완제품 생산을 위한 실·천·원자재 등 구입시(숨화) 25%, △생산 현대화를 위한 건물·설비 구입시(외화) 50% 지원
 - 섬유제품 생산에 특화된 기업들이 수입 장비, 부품 및 국내 미생산 원자재 등 수입시 '19년말까지 관세 면제
 - * '2017~2019년 섬유 및 봉제 산업 추가 발전을 위한 조치 프로그램' 발표
 - *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섬유 분야에 10개 이상 기업의 현대화 및 120개의 신규 기업 설립 등 총 2,200만 달러 이상의 투자 계획 발표
- 한-우즈베크 섬유테크노파크 개소 예정으로 양국간 협력 확대
 - (목적) 지원을 통한 우즈베크의 섬유산업 자립화 기반을 마련하고, 국내기업과의 교류 활성화를 촉진하여 양국의 섬유산업 동반발전 도모
 - (사업기간 및 사업예산) '15년~'19년, 약 200억원
 - (주요내용) 섬유기술인력 양성, 제품 시험생산을 위한 설비 구축, 현지 기술인력 및 협력기업 네트워크 구축

□ 농업 분야

- 정부의 품종 다변화 노력
 - 세계적인 목화 수요 감소 및 가격 하락에 따라 2020년까지 350만 톤에서 300만 톤으로 생산을 감소시키고 과일 및 채소 재배로 품종 다변화 추진중
 - 겨울철 안정적인 공급과 가격유지를 위해 온실 재배를 장려하는 등 시설농업을 확대해 한국산 비닐하우스 수출 증가

- 2018년 온실관련 설비를 포함한 전체 조립식 건축물 수입은 약 1억 2,700만 달러로 그중 한국산은 약 5,995만 달러
- * 2위는 터키(약 2,086만불), 3위 중국(약 2,013만불) 순
- * 자료 : International Trade Center
- 품질이 떨어지는 중국제품보다 인지도가 높아진 한국제품을 선호하여 우리 농업 기자재 수출 품목중 중 1위
- * 기타 주요 농업기자재 對우즈벡 수출 현황(천달러, '18년 기준) : 액상펌프 25,900, 곡물 정선기계 : 29

○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

- '19년 2월 우즈벡 정부는 자국산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도매 라이선스가 없어도 과채류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허용, 수익에 대해 통합세를 적용토록 우대

○ 한-우즈벡 농기계 R&D센터 개소 예정

- (목적) 농기계 부속작업기(파종기 등) 공동연구에 필요한 기자재 및 교육훈련 지원을 통한 국산 농기계의 수출 촉진
- (수행기관) 전북테크노파크,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
- (사업기간 및 사업예산) '16.3월 ~ '19년 12월, 약 66억 달러
- (주요내용) 기자재 지원, 기자재 운영 및 유지보수 인력 양성, 기업간 농기계 개량연구 및 교류 지원 등

□ IT 분야

- 전자상거래 시장이 연평균 25% 성장을 하고 있으며, 디지털 경제 발전이 국정운영의 주요과제
- * '18.7월 '우즈베키스탄의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한 방안' 마련
- 한-우즈벡 공동 행정 현대화를 위한 전자정부 프로그램 계획 및 전자상거래 가속화 조치

- '전자상거래 발전 가속화 조치' 대통령 결의안 발효('18. 5월)
- * (주요내용) 전자상거래 국가등록시스템 운영, 제공 서비스 개선, 국제적 플랫폼 접근성 향상을 통한 수출 확대, 현실과 맞지 않는 관련 법규 미비사항 보완
- '2013~2020년 우즈벡 국가 정보통신시스템 종합프로그램' 발표
- * (주요내용) 2020년까지 국가 정보통신시스템의 전반적 확산과 전자정부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우즈베키스탄 통신 인프라 개발 및 데이터베이스시스템 구축

○ 한국과 전자정부 프로그램 협력중

- '17.11월 우즈벡 정상 방한 시 전자정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-우 전자정부 MOU 재체결
- * '12.9월에 대외경제투자통상부와 1년간 전자정부 MOU 체결
- * '13.12월에 ICT 국가위원회와 3년간 전자정부 MOU 체결
- 협력실적 : 총 20건 / 1.9억불 ('18. 12월 현재)
- * 지능형 전기검침 구축사업(11,000만불, '15년), 전자도서관 시스템 구축사업(1,154만불, '16년), 국가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사업(1,370만불, '16년) 등

□ 자동차 분야

- 2018년 한국의 자동차 부품 수출액은 약 7.7억 달러로, 한국의 우즈벡 전체 수출(21억 달러)의 40% 수준
- 과거 대우자동차('96년 중앙아 최초 자동차공장) 및 현 한국GM의 협력 관계에 따라 한국산 부품에 대한 수요가 큰 편

< 우즈벡 자동차 부품 수입(천불) >

순위 (18년기준)	국가명	2015	2016	2017	2018
1	한국	506,328	323,346	523,590	769,723
2	중국	12,640	9,829	15,893	24,415
3	러시아	4,316	2,685	4,181	11,692
4	벨라루스	343	403	148	10,484
5	브라질	2,010	141	2,223	9,108

* 자료 : International Trade Center

- 우즈벡 자동차시장에서 GM우즈베키스탄 점유율은 90% 수준

○ 자동차 국산화 목표로 부품의 자국 생산 노력중

-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'자동차산업 2017~2021년 5개년 발전 계획'을 승인하여 총 51개 프로젝트 이행 계획(8.34억 달러)을 수립
 - * (주요내용) △신차 개발 7개(4.33억 달러) △부품 국산화 35개(2.44억 달러), △설비현대화 9개(1.57억 달러) 등

○ 현대차 우즈벡 나망간에 상용차 조립 생산공장 추진

- '18. 11월 공장 건설 기공식을 갖고, 트럭과 버스 생산 추진
- '19년부터 1000여대의 트럭, 버스 생산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연간 3,000여대의 이상 생산하며 부품 현지화 계획

3) 외투기업 혜택 이용

□ 주요 제도 개선

- '17년 9월 단행된 외환자유화 조치에 따라 외국환의 환전 및 해외 송금에 대한 제한을 거의 폐지
 - 우리 기업은 가장 투자를 꺼리게 했던 환전, 송금문제가 일단 해결되면서, 사업하기가 수월해졌다고 평가
 - 다만, 중앙은행 허가 없이 외국에 계좌를 보유할 수 없고, 국내의 모든 결제가 우즈벡 솜으로 이루어져야하는 불편이 남아 있음
-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2년간 세무조사 유예하는 등 혜택
- 국제입찰 수주에 대한 절차 간소화
 - 국제입찰에서 낙찰을 받아도 정부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, 승인에 최소 3~6개월 걸리던 절차 폐지

- 현재는 투자위원회 승인을 받는데 거의 2주 정도 시간이 소요되며, 앞으로는 등록만으로 처리가 되도록 절차 간소화

□ 경제특구 운영

○ '18년말 현재, 총 19개의 경제자유특구가 지정되어 운영중

- 산업특구 9개, 의약품 특구 7개, 농업특구 2개, 관광특구 1개 지정
- 경제자유특구는 투자 금액에 따라 토지세, 소득세, 사회보장세 등 세금 혜택 부여
 - 30~300만 달러 3년 면세, 300~500만 달러 5년 면세, 500~1000만 달러 7년 면세, 1000만 달러 초과는 10년간 면세
 - 수출 상품을 목적으로 하는 원재료, 부품 등에 대해 관세 등 통관 비용 면제

□ 보건의료 분야

- '2017~2021년 보건복지 발전 전략'을 수립하여 약 4천 6백만불 편성
 - * 편성 예산 : 3,735억 솜, 100만불
- 우즈벡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않아 우즈벡의 의료기기 제조는 거의 전무하며, 대부분 해외 수입에 의존
 - 해외에서 수입하는 최신 의료기기와 주요 의약품에 대한 관세 면제 혜택 부여중
- 한국과 다양한 의료 협력을 추진중
 - 2015년 한국 보건복지부와 우즈벡 보건부간 보건의료 협력약정 체결
 - * 한국 의료인 면허 인정 및 의약품 의료기기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
 - 2017년 양국 정상회담 중 보건의료 등 여러 분야의 협력 증진 합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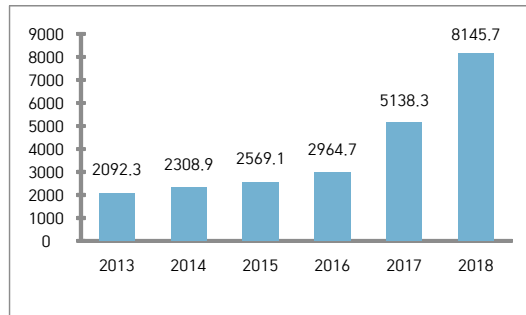
- 2018년 경제부총리 방문중 우즈벡 국립의료복합단지 설립 협력 MOU 체결
- 전 보건복지부 이동욱 인구정책실장을 '19년 2월 우즈벡 보건부 차관으로 임명

4) 우즈베키스탄 진출시 유의사항

□ 환율물가 변동으로 인한 불안정

- 시장환율과 공식환율의 단일화('17. 9월) 이후 솜(SUM)-달러 환율 대폭 인상으로 소비자 구매력 저하 우려
- '17년 단일화 전 공식환율은 4,210솜이었으나 단일화 후 8,100솜으로 두 배 가량 상승

< 솜-달러 환율 추이(1달러당 솜, 연평균) >



* 자료 : World Bank

- 물가 인상율도 환율 고정화 이후 급상승
- * 물가인상율(%) : 5.5('15년) → 5.6('16년) → 14.4('17년)
- 우리 기업이 각종 사업진출시, 특히 건설사업 수주의 경우 향후 물가 및 환율을 사전에 예상, 관리할 필요가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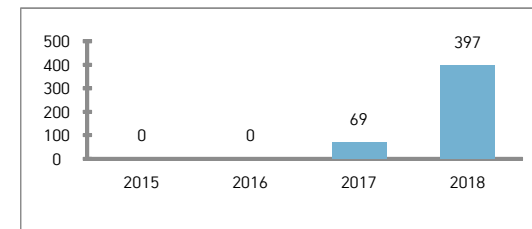
□ 이중내륙국으로 인한 高 물류비, 통관 절차 등 유의

- 우즈베키스탄은 리히텐슈타인과 함께 세계에서 단 두 국가뿐인 '이중내륙국'으로 높은 물류 비용 발생
- 일반적인 화물운송은 철도나 항공을 통해 이루어져 많은 시간과 비용 소요
 - * 이중내륙국 : 다른 두 국가를 거쳐야 바다가 나오는 국가
 - * 철도의 경우 시베리아 횡단철도나 중국내륙 횡단철도 등을 이용하며 철도의 경우 20일 이상 소요
- 더불어, 통관 시스템이 낙후되어 있어 역외 국가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활동에도 장애가 있는 편
- 행정절차도 불투명하여 세관에서 품목코드를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발생

□ 유럽기업 진출로 시장 경쟁 심화

- 최근 유럽 기업들의 우즈벡 진출이 증가하는 경향
- 우즈벡의 개혁·개방이 속도를 내고 있으며, 서방국가의 對러시아 제재에 따라 상대적으로 우즈벡으로 진출하는 기업 증가

< 유럽은행의 對 우즈벡 투자 추이(백만유로) >



* 자료 : European Bank

- 이에 따라 시장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 오래전부터 우즈벡에 진출하여 우위에 있던 우리 기업들의 선점 효과가 약화될 우려